

Yaxing, CPE-CPVC 절대강자 부상

CPE 생산능력 7만톤에 세계시장 30% 장악 ... CPVC 매출도 급신장

중국의 Yaxing Chemical이 CPE(Chlorinated Polyethylene) 및 PVC(Polyvinyl Chloride), Caustic Soda로 재미를 보고 있다.

CPE는 2003년 매출액 6억7406만원의 60-70%를 차지했는데, 플라스틱 Modification 및 고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Yaxing은 세계 최대의 CPE 생산기업으로 생산능력이 7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기술도 독일 Hoechst 프로세스를 채용했다.

현재 중국시장의 60%, 세계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HDPE 가격이 올라 CPE의 순이익이 4.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VC도 2003년 매출이 1억5442만원으로 전년대비 36.3% 증가했고 순이익률은 2002년 4.5%에서 2003년 22.8%로 급상승했다.

Yaxing은 2003년 Caustic Soda 6만톤 플랜트도 완공해 또다른 수익요소로 등장했는데 CPE 생산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Chlorosulfonated PE 생산능력을 1000톤, CPVC 6000톤, 고기능 Profile은 1만톤에서 3만톤으로 증설한다.

2005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CPE 생산능력은 10만톤으로 확대된다. Yaxing은 염화 폴리머 연구소를 설립하고 2004년 들어서는 CPE 3만톤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PVC 생산능력도 2004년 상반기까지 1만5000톤 증설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6/04>